

‘아프리카 담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콜렉션 선보여

세기P&C(주)

취재 | 박지연 기자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한국총판 세기P&C(대표·이봉훈)는 지난 8월 23일 오후 3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신제품 아프리카 콜렉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일반 유저 150여명과 기자 및 딜러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정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아프리카 타악그룹 ‘쿵바야’ 공연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콜렉션 개발자의 R&D스토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디자이너가 아프리카를 느낄 수 있는 색상 및 디자인의 가방을 소개하고 있다.



▶ 아프리카 콜렉션 신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한 세기P&C의 이봉훈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내셔널지오그래픽 관계자들

신제품 아프리카 콜렉션은 2종류의 backpacks, satchels 3종, totes 2종, holsters 2종, pouches 2종, 기내용 여행 가방 1종, duffle bag 1종, rain cape 1종, utility kit 1종, 2종류의 레인커버가 소개됐다. 이번 제품을 기획한 내셔널지오그래픽 솔로미 래비드(Shlomi

Ravid) 매니저는 “아프리카풍의 분위기, 색상, 민속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시와 정글 어디에서든 어울릴 수 있도록 스타일리쉬하게 디자인되었으며 미디어 기기와 사진 장비 보호 기능까지 더했다”고 말했다.

일반 카메라 가방이 장비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은 최소한의 장비를 보호하는 역할만 제공하는 대신 매일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콘셉트를 강조했다.

제품 외형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광주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서, 심플하면서도 역동적인 구조는 본질적으로 가방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이 지속적인 흐름을 창조해 내는 연속적인 매듭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기존 어스익스플로러와 워크어바웃에서 불만사항으로 지적되던 착용감도 개선했다. 캔버스 재질은 그대로지만 때가 잘 타고 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을 더 부드럽게 처리했으며, 오랫동안 쓰면 어깨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폭신한 어깨패드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서 세기피앤씨 이봉훈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셔널지오그래픽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한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세기피앤씨의 전 직원이 늘 소비자 곁에서 고민하고 변함없이 소비자를 위해 존립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